인도 한복판에 줄만 그어놓고…

'참 웃기는' 자전거 도로

광주 동구청 전시행정에 시민들 불만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고, 인도에 줄만 그으면 자전거전용도로가 되나요."

광주시 동구청이 최근 인도(人道)에 설치한 자전거전용도로를 두고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16일 동구청에 따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자전거전용도로 5.7㎞(예산 700만원)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4일 광주시 동구 광산동 옛 광주지방노동청부터 전남대병원 구간 인도에 흰색 페인트를 이용해 전용도로 표시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동구가 설치한 자전거전용도로는 단지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보도블럭 위에 1m10㎝의 넓이로 흰색 실선 두 줄을 그어 놓은 것에 불과해 보행공간을 축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관상에도 좋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행자들도 인도 한복판에 그려진 자전거전용도로에, 주변 상가가 인도에 내놓은 각종 물건을 피해야하는 곤욕을 치르고있다. 보행자의 보행권이 설자리를 잃은 것이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로 분류되고 있어, 전용도로는 인도가 아닌 차도 옆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광주·전남 대부분의 지자체는 전용도로 조성의 어려움과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인도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모(여·49)씨는 "인도의 대부분을 자전거전용도로로 지정해 놓으면 보행자들은 도대체 어디로 걸어다녀야 한단 말이냐"며 "고유가 때만 되면 자전거 이용하라고 말만 하지 말고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도 마찬가지였다.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던 최모(36)씨는 "광주시 전체 자전거전용도로 가운데 그나마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은 광주천변 전용도로 등 1~2곳 뿐"이라며 "현실적으로 보행자 사이를 가르며 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어 차도로 다니는 경우가 많아 항상 불안하다"고 답했다.

이처럼 인도에서 보행자와 자전거가 뒤섞이다 보니 인도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간의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 문제가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만약 자전거전용도로로 표시된 공간에서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는 전용도로를 침범한 잘못으로 인해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자전거도 보행자를 피해 인도를 넘어갔다가 사고가 나면 과실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동구청 건설과 한 관계자는 "폭이 좁은 구 도심의 도로 사정상 자동차 도로를 쪼개 자전거전용도로까지 설치할 수가 없어 고육지책으로 인도에 전용도로를 설치한 것"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마찬가지지만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고 포괄적인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광주시 동구청이 옛 광주지방노동청~전남대병원 구간 인도에 페인트로 표시한 자전거전용도로.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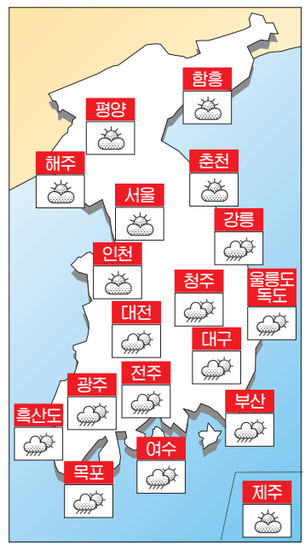
독도 태극기 '활짝'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은 후 점차 벗어나겠다.

7월 17일 (음 6월 15일) 날씨

◇전국날씨

광 주	비 후 갬	25~31℃
목 포	비 후 갬	25~30℃
여 수	비 후 갬	24~27℃
완 도	비 후 갬	24~30℃
구 례	비 후 갬	25~32℃
해 남	비 후 갬	24~31℃
장 흥	비 후 갬	24~31℃
고 흥	비 후 갬	23~29℃
순 천	비 후 갬	23~31℃
영 광	비 후 갬	25~31℃
진 도	비 후 갬	25~31℃
전 주	비 후 갬	24~31℃
남 원	비 후 갬	23~30℃
흑산도	비 후 갬	22~27℃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목 포 밀물 01:44 13:25 썰물 07:19 18:57
여 수 밀물 08:16 21:09 썰물 02:42 14:20

▲해뜸 05:31 ▲해짐 19:46 ▲달뜸 19:16 ▲달짐 04:0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8(금)	19(토)	20(일)	21(월)	22(화)	23(수)
날 씨						
최저/최고	25/32	25/29	25/28	24/29	24/30	24/30

영산강환경청장·광주기상청장 1일 교대근무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박용철)과 광주지방기상청(청장 진기범)의 두 청장이 17일 하루동안 서로 근무지를 바꿔 교류 근무를 실시한다. 지역 환경청장과 기상청장의 교류근무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두 기관장의 교류근무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 등 효율적인 환경 정책추진에 있어 두 기관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이뤄졌다.

두 기관장은 이날 서로 역할을 바꾼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자기 분야에 대한 특별강의를 할 예정이다.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상대 기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는 계획도 있다. 목포기상대와 광주시 유덕동 하수처리시설·주암댐 등 주요 현장도 방문할 계획이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살인 폭염' 닭 집단폐사 잇따라

연일 30도를 웃도는 불볕 더위로 닭이 집단 폐사해 농가와 전남도에 비상이 걸렸다.

농가들은 연일 축사 천장에 물을 뿌리고 청소를 하는 등 폭염에 대비하고 있지만 닭 폐사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 수일간 폭염이 지속될 경우 닭 이외에 오리나 돼지 등의 가축도 폐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농가를 상대로 '폭염 대비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이번 닭의 집단폐사가 열사병으로 인한 것이 거의 확실시되지만 지난 5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가 수그러들지 않았던 점을 감안, 다양한 질병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시작된 닭의 폐사는 15일 현재 여수·화순·장성·강진 등 4개 시·군 12개 농가의 1만3천750마리에 달하며, 피해액은 총 5천481만원으로 추산된다.

집단폐사는 7일 화순군 한천면 G모씨 농장과 장성군 삼계면 L모씨의 농장에서 각각 3천마리씩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매일 1천마리 이상 발생하고 있다.

전남도는 관계자는 "폭염이 수그러들지 않는 한 추가 집단폐사는 불가피하다"면서 "자칫 정전이라도 발생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채희종기자 chae@

광주교대 총장 3명 입후보

오는 29일 선거

오는 29일로 예정된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선거에 3명이 입후보했다.

16일 광주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입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정환금(54), 이정선(49), 박남기(48) 교수 등 3명이 등록을 마쳤다.

입후보자는 이날부터 선거일 전일인 28일 자정까지 선거공보 발송, 합동정책발표회, 전화와 이메일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합동정책발표회는 22일 오후 2시, 토론회는 25일 오후 2시 대학원 강당에서 열린다.

교수 65명과 직원 57명 등 선거인수 122명의 3분2 이상 투표와 선거인수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이 확정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한편 전임 임현모 총장은 대외 정치활동 등을 이유로 교수들의 사퇴 압력을 받다오다 지난달 25일 사임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물놀이 사고 주의보

주말 오후 3~6 시 조심

여름철 물놀이 사고는 주말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은 2005~2007년 '재난관리정보 DB센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에 신고된 전체 물놀이 사고 729건 가운데 81%(593건)가 방학과 휴가철인 7~8월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

전화결제 피해 뿌리뽑는다

이용자보호협 출범…부당 결제 등 차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와 손잡고 전화결제 이용자 피해를 뿌리 뽑기 위해 16일 '유무선 전화결제 이용자보호협의회'(전보협)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유무선 전화결제란 인터넷에서 게임 아이템 등 디지털콘텐츠, 물품 등을 구매하고, 결제대금을 이동전화나 유선전화요금 고지서에 부가해 징수하는 대행 서비스이다.

이번에 출범한 '전보협'은 다날, 모빌리언스, 사이버패스, 소프트가족, 인포바인, 인포허브, 효성FMS, 파네즈 등 8개 통신과금중개사업자와 SKT, KTF, LGT, KT 등 4개 통신사업자가 참여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해왔으나, 콘텐츠사업자의 영세성 등으로 규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요금결제를 담당하는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통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이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보협'은 전화결제 서비스에 있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에 대해서는 결제 차단,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불량 콘텐츠사업자는 결제대행 계약을 해지하고 '전보협'에 불량 사업자로 등록해 전화결제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광주 노인 65% 성관계 안한다

광주지역 노인 65% 가량이 성관계를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33%가량은 월 1회 이상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 남구보건소와 구세군 레드리본센터 등은 지난달 30일 광주공원 시민회관 앞에서 노인 175명을 대상으로 '노인 성인병 검진·성병·성 예방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75명의 노인 중 64.6%(113명)가 '성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월 1회 12.6%(22명), 2주 1회 9.7%(17명), 주 1회 5.7%(10명)였으며, 주 2회 이상도 5.1%(9명)로 조사됐다.

또 성병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40%가 아내 이외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어 성병을 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 38명 중 8명(21%)이 '성매매 여성', 5명(13.9%)이 '여자친구', 2명(5.26%)이 '그외의 여성' 때문에 성병에 걸렸다고 답했다.

성관계 파트너는 '아내' 62명(35.6%), '성매매여성' 5명(2.8%), '여자친구' 16명(9%), '그 외의 이성' 2명(1.1%), '무응답' 90명(51.5%)으로 나타났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